

# '청렴 교육' 그렇게 내세우더니...

## 억대 수취협의 장만채 도교육감 구속 친구 관선이사 선임·부인 인사 의혹도 교육계 당혹속 각종 현안사업 차질 우려

'청렴교육'을 내세웠던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수취협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구속됐다.

도교육청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게 됐고 직원들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도 빛을 잃게 됐다. 장 교육감의 '부패추방 정책'을 믿고 따랐던 직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황해 했다.

◇인사 '입김' 의혹=검찰은 장 교육감 친구가 한 중학교 관선이사에게도 선임된 것과 그 부인(교사)의 상황 전보인사를 주목하고 있다.

해당 친구는 지난해 1월 학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수 모 중학교 관선이사로 선임됐고, 그 부인은 교사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이 친구에게 월 한도액 150만원인 카드를 제공받아 모두 3000여만원을 골프와 술값 등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친구에게도 같은 한도액의 카드를 받아 3000여만원을 썼으며, 이 친구의 딸이 보성의 명문 사립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학교장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정치적 야심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 교육감의 '정치 로드맵'이 발견됐다. 이문건에는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 또 다시 당선패 정치기반을 닦은 뒤 대권주자로 성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청렴 강조하다니"=장 교육감은 지난 2010년 당선된 후 언론 인터뷰

부에서 "돈봉투를 전달하려는 공무원이 여러명 있었다"고 폭로, 자정의지를 표명했다. 감사관을 검사 출신 변호사로 임명하는 등 고강도 청렴정책을 폈었다.

도 교육청의 한 직원은 "교육 개혁을 내세웠던 교육감이 되레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다"며 "전남교육청이 부패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교육청 주변에서는 교사인 친구 부

인의 전보인사, 무보수 명예직인 중학교 관선이사 선임 등을 금품수수의 대가로 보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안 차질=장 교육감 특유의 추진력으로 이끌었던 거점고 육성 사업은 동력을 잃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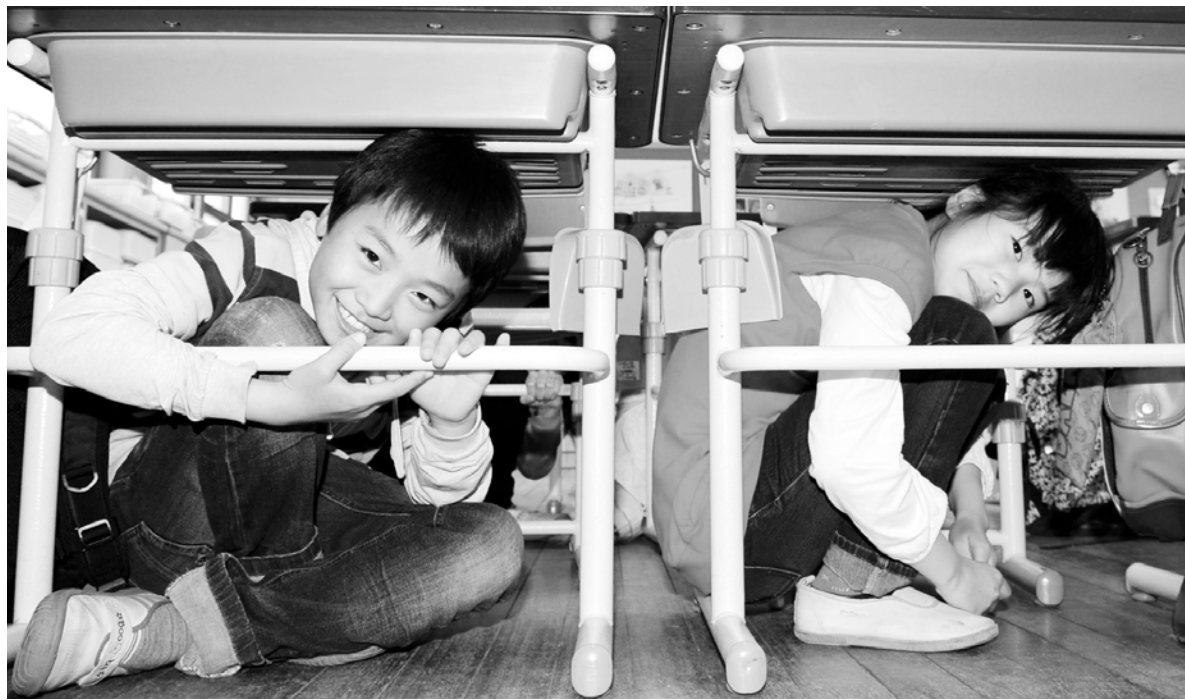
이 사업은 학생수 급감으로 수업에 차질을 빚는 '미니학교'를 특정 거점고로 흡수·통합해 집중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 교육감은 직접 현장설명에 나서는 등 총력을 쏟았다.

교육감의 부재로 농촌 지역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과후 학교'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장 교육감은 돌봄교실,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사교육없는 학교, 전원학교,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으로 이뤄진 사업을 주도했다.

◇구속기소시 대행체제=장 교육감이 구속됐지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까지 길게는 20일 동안 '옥중결재'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2조는 "(자치단체장이)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통해 구금상태를 벗어날 경우 교육감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기소 후에도 구금상태가 지속되면 그 시점부터 교육감의 업무는 부교육감이 대신한다.

전남도교육청은 26일 보도자료에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고육성, 전인교육을 위한 무지개학교 등 산적한 많은 정책을 김원찬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들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진발생시 이렇게** 광주 용봉초등학교 학생들이 26일 교실에서 지진 발생시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동안 전국에서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을 가정해 훈련이 실시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나원침 (8554) 김종두



### "남편 실적에 아이 옷 살 돈 없어"

#### 마트서 의류·식료품 툰 자매 입건

광주 북부경찰은 26일 대형마트에서 의류와 식료품을 훔친 박모(여·33)씨와 박씨의 언니(3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5시에 광주 북부 두암동의 한 대형마트 매장에서 아동의류, 속옷, 식료품 등 21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자매는 아동복, 식료품 매장 등에서 쇼핑을 하는 것처럼 함께 돌아다니며 물건의 리벨을 뜯은 뒤 미

리 준비해간 가방에 물건을 숨겨 나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매장 내 CCTV를 분석해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해 이들을 검거했다.

전업주부인 동생 박씨는 경찰에서 "최근 남편이 실적에 형편이 어려워 고, 아이의 옷을 살 돈도 없어 막대한 마음에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선거 '위치추적기' 악몽 재현?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곡성을 뜨겁게 달궜던 '위치추적기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26일 구속기소된 군수 비서실장이 현 군수를 돕기 위해 상대 후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하게 했다가 공직

로 체육시설 설치업자 김모(53)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 백만원을 받아 갱신 혐의다. 특히 안씨는 특정 업체가 8억원 상당의 인조잔디를 체육공원에 납품하도록 한 뒤 이 업체가 허공수의 선거운동을 돕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임모(52)씨에게 4000만원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곡성경찰서장 출신인 무소속 허 군수 선거본부에서 일하다가 경쟁 후보인 당시 민주당 조원래 후보의 선거용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처벌받은 바 있다.

허 군수는 위치추적기 사건에 자신의 친동생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자해를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게 끝에 당선된 바 있다.

/유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구속 기소된 곡성군수 비서실장 현군수 도우려 추적기 장착했던 당시 운동원에게 금품 알선 적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던 측근에게 금품을 건네도록 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희철)는 이날 관급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허남석 곡성군수 비서실장 안모(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지난해 5월2일 곡성군 민회관 주차장에서 생활체육공원 공사에 1억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

### 순천 경전선 철길서 60대우 열차 치여 숨져

26일 오후 3시께 순천시 장평동 경전선 철길에서 이모(여·67)씨가 순천발 광주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철길을 걸어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가수 박상민 전 매니저 3억 횡령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가수 박상민(48)씨의 차량 구입비와 앨범 제작금 등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박씨의 전 매니저 서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발표.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씨의 미니앨범 제작금 1억6000여만원과 차량 구매대금 3500만원 등 박씨의 돈과 회사 돈 총 3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또 서씨는 "회사 명의로 차량 1대를 출고시켜주면 꼭 할부금을 내겠다"고 박씨를 속여 회사 명의로 7천만원 상당의 외제차 1대를 산 혐의도 추가.

/연합뉴스

###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게 첫 승소 판결

김천지원

네이트·씨아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씨아이월드 회원 유능중(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

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국내에서 이메일주소 등 여러 건의 인터넷 해킹사건이 발생했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3500만명에 달한 네이트·씨월드 회원의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행 선정 등 이익 발생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하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노조원 1인당 10만원을 자발적으로 임금한 것처럼 꾸며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의 후원회에 모두 6400만원을 기부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에 도 같은 방법으로 광주지역 자치단체장 후보 7명에게도 500만원~1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했다.

/유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 '112·119 3자통화' 확대

경찰청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112전화로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소방방재청과 즉시 소대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12·119 간(間) 핫라인 3자통화'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경찰관서 112센터와 소방방재청의 119센터간에 핫라인으로 전화를 연결하고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112센터·119센터 간 3자통화가 이뤄진다.

/연합뉴스

### '뜨개기' 후원금 광은노조 전 간부 벌금형

광주지법, 500만원씩

'뜨개기' 정치 후원금으로 논란이 됐던 광주은행 노조 전 간부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신희범 부장판사는 26일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가 기소된 하모(49)씨 등 광주은행 노조 전 간부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노조 차원에서 후원금을 모집해 전달한 것은 고공 안전과 주거태은

목표의 주인은 시민 여러분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아름다운 목포, 밝은 미래의 목포가 보입니다.

목	목포농산물도매시장	목포농협동조합	목포농협동조합	목포농협동조합	목포농협동조합	농협은행목포·신안군지부	KT전남마케팅단	한국전력목포지점	순상그리아비치호텔	카웨이리호텔	씨월드고속호텔	신안관광산업광업	순행남자역주	목포시
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지회	한국음식업중앙회전남목포지부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목포문화재단

